

제 목	국 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 문	A case-control study on risk fact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서 일 ¹⁾ , 조승연 ¹⁾ , 심원흠 ¹⁾ , 남정모 ¹⁾ , 강형곤 ¹⁾ , 오경원 ²⁾ , 김석일 ¹⁾ , 이강희 ¹⁾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Il Suh ¹⁾ , Seung Yun Cho ¹⁾ , Won Heum Shim ¹⁾ , Chung Mo Nam ¹⁾ , Hyung Gon Kang ¹⁾ , Kyung Won Oh ²⁾ , Suk Il Kim, ¹⁾ Kang Hee Lee ¹⁾ 1)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서 일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O)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0 월			
<p>1. 연구 목적</p> <p>한국인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면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율과 이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는 흡연, 고혈압 및 고 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부족, 음주,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당뇨병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은 서구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환자-대조군 연구를 이용하여 한국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환자군은 1995년 10월 30일부터 1996년 7월 31일까지 연세의료원 심혈관센터에 입원한 심근경색증과 협심증 환자 중 혈관조형술로 관상동맥질환이 확진된 초발환자 중 남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은 동 기간동안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안과와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 중 환자군의 연령군에 따른 빈도 짝짓기에 의하여 선정된 남자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p> <p>면접과 검사자료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유무,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음주, 가족력, 식사섭취양상과 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p> <p>분석방법으로는 환자군과 대조군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단일변량 분석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및 t-검정을 실시한 후 단일변량 분석에서 유의한 위험요인들을 이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위험요인의 교차비를 산출하고 질병 발생과 관련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p>				

3. 연구결과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에 대한 단일변량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환자군과 대조군에 있어 흡연, 뇌졸중 가족력, 비만도(body mass index), 혈당, 혈중 알부민과 HDL 콜레스테롤 및 비타민 A 섭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 < 0.05$).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2.10이고 금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1.50이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2.06이었다. 비만도는 환자군(25.08)이 대조군(23.8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당도 환자군(126.64mg/dl)이 대조군(108.22mg/dl)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HDL 콜레스테롤은 환자군(34.82 mg/dl)이 대조군(37.89mg/dl)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혈중 알부민도 환자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환자군 4.29mg/dl, 대조군 4.50mg/dl). 한편 비타민 A 섭취량은 환자군이 437mg으로 대조군(499mg)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단일변량분석에 유의한 위험요인을 이용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흡연, 비만도, 혈당, 혈중 알부민과 뇌졸중 가족력이 관상동맥질환 발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2.42배이며 금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1.58배이었다.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교차비는 2.11이었다. 한편 비만도와 혈당이 높을수록, 혈중 알부민이 낮을수록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위험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자-대조군 연구를 이용하였다. 환자군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입원한 초발환자, 대조군은 안과와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 안과 및 정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환자군과 연령이 비슷하고 관상동맥질환자와 공통된 위험요인을 가진 질병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위험요인은 이미 외국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한국에서도 외국과 같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흡연과 비만도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파악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며 한국인의 관상동맥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식사섭취양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중에 있다.